

## 1. 참가 활동 내용(사진 포함 가능)

### 1일차 ) 호안끼엠 호수 주변 관광 및 하노이 대학 캠퍼스 투어

개인 수하물을 찾고 공항 밖으로 나가자마자 더운 열기가 느껴졌다. 하지만 비가 그친 뒤 시원한 날씨라는 가이드님의 설명을 듣고 앞으로의 일정이 걱정되었다. 하지만 걱정도 잠시, 쌀국수와 같은 현지 음식을 맛볼 수 있어서 좋았다. 그 후 가이드님의 설명을 들으며 하노이 대학 캠퍼스와 오페라 하우스를 방문했다.



▲ 이지앤북스 제공

오페라 하우스.

파리의 국립 오페라하우스를 모델로 건축된 대표적인 프렌치 스타일의 건축물이라고 한다. 건물 외관이 정말 아름다웠지만, 하노이 대학 캠퍼스와 오페라 하우스 둘 다 내부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외관만 감상한 것이 아쉬웠다.

다음으로는 호안끼엠 호수에서 전동차를 타고 호수 주변과 골목 구석구석을 탐방했다. 날이 정말 더웠는데 이동수단을 타고 주변을 둘러볼 수 있어 정말 좋았다.



▲ 위키피디아 제공

성 요셉 성당.

멀리서 보고, 가까이에서 보고 그 위엄에 압도당했던 건축물이다. 베트남에서 관광했던 방문지 중 아직까지도 손에 꼽히는 기억나는 명소 중 하나이다. 이는 프랑스 식민지 시절 하노이에 지은 성당으로 하노이 대성당이라고도 불린다고 한다. 서구 양식과 베트남 양식이 혼합된 건축물로 유명하다.

### 2일차 ) 하노이 코트라 및 롯데백화점 하노이센터 방문

가장 많은 기대를 했던 하노이 코트라 방문. 코트라에서 재직하셨던 한상곤 교수님의 지원과 도움으로 하노이 코트라 무역관을 방문할 수 있었다. 이희상 무역관장님께서 베트남 경제/투자 동향 및 시장특성에 관해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주셨다. 중간중간 국제통상학과 전공과목에서 수강했던 내용이 있어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.

식사를 한 후에는 롯데백화점 하노이센터를 방문하였다. 이 역시도 한상곤 교수님께서 해외문화체험 일정 전에 미리 연락하시고 일정을 잡아주신 덕분에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. 롯데마트부터 아쿠아리움 등 다양한 문화시설과 쇼핑시설이 있었다. 7월 9일 기준, 1년도 되지 않아 매출 2000억을 돌파하며 누적 방문객 수도 8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.

### 3일차 ) 자유연구

3일차는 팀별 자유연구가 진행되는 날이었다. 우리 팀의 연구 주제는 '베트남 주요 관광 도시에서의 팁 문화 현장 조사'였다. 팁 문화가 보편화되지 않은 베트남의 특성상 확실히 팁 문화가 있는 분야라고 생각했던 마사지, 인력거, 나룻배라는 세 가지 카테고리를 정했고, 추가로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팁을 받는지도 연구해보고자 했다. 그리고 자유연구의 첫 활동은 마사지였다.

베트남 팁 문화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업종은 마사지샵이었다. 마사지샵마다 팁을 지불하는 방법이 달랐으며, 마사지 가격 자체에 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마사지 가격 이외에 팁을 원하는 만큼 지불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. 예상 외로 달러보다 베트남 돈을 선호하고 있었고, 팁을 받는 다른 업종으로는 네일샵이 있으며, 적당한 팁 가격은 전체 금액의 5% 정도라는 직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. (네일샵에서는 업소에서 지정해둔 팁 액수를 선택할 수 있었다.)

다음으로는 인력거를 탔는데, 요금을 결제할 때 팁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았고, 또한 따로 요구하지도 않아서 의외라고 생각했다. 하지만 인력거 탑승 전에 합의된 금액의 두 배를 요구해서 당황스러웠다.

또한, 팁 문화는 배달 업계에서도 활용되고 있었다. 배달비와 별도로 배달 기사에게 팁을 지불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었다. 다만 이 역시도 필수가 아닌 선택이었기에 원하는 만큼 지불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었다.

마지막으로 3일차는 아니지만, 4일차에 진행되었던 나룻배 관광에서도, 서비스가 종료된 후 노꾼에게 팁을 주는 것이 암묵적인 관례 형태로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.

### 4일차 ) 닌빈 방문 및 바이딘 사원 관광

마지막 날에는 닌빈을 방문했다. 닌빈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주목한 도시로 알려져 있다. 나룻배를 타며 주변 자연경관을 감상했다. 동굴 안으로 세 차례 가랑 들어갔었는데, 이러한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고 즐거웠다.

바이딘 사원은 대규모 사원 단지로,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곳으로 알려져 있다. 사원의 규모가 큰 만큼, 사원 단지 주차장에서 사원 입구까지 전동차로 15분 정도를 이동해야 도착할 수 있었다. 찾아보니, 이러한 경우, 사원 입구, 종각, 관세음전, 석가불전, 삼세불전, 불탑 순으로 관람할 수 있으며, 도보로 이동할 경우에는 역순이 된다고 한다.

## 2. 참여 소감 및 향후 계획

단순 관광지 방문이 아닌, 코트라와 롯데백화점 하노이센터 방문 등 무역 분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소를 방문한다는 점이 굉장히 만족스러웠다. 가이드님도 열심히 설명해주셔서 간단한 베트남어 회화도 알 수 있었고, 특정 장소에 대한 특징들 또한 알 수 있어서 좋았다. 김한성 교수님께서 국제통상입문 강의 시간에 '지역을 알고 사람을 알아야 한다'라고 말씀해주시며 해당 프로그램에 참가해보는 것을 추천해주셨는데,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, 뜻깊은 시간이었다.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.

## 3. 프로그램 주관 기관 및 대학에 바라는 점

앞으로도 이러한 해외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많이 개설되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공되었으면 합니다. 해외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, 국제통상학과를 복수전공 혹은 부전공하는 학우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었으면 합니다.

## 4. 다른 학우 및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

단순 관광지 방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, 다양한 장소의 특성을 파악하고 코트라 및 롯데백화점을 방문하고 현지 직원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진로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. 다음에도 이러한 프로그램 모집 공고가 올라온다면 참여할 것을 추천드립니다!